"'엄마 손맛'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요"

●박혜선 놀디스튜디오 대표

'스틱형 액상 육수' 개발 시중 제품 차별화…해외 시장 공략도

동강대 BI센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역량↑

"스틱형 액상 육수로 가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 먹거리였지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수출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박혜선(40·사진) '놀디스튜디오' 대표가 음식에 맞춰 아무 때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식 스틱형 액상 육수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중에는 이미 완성도 높은 대기업 제품들이 많지만 박 대표가 개발한 육수는 멸균 제품으로 가열하지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식이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박 대표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엄마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떠올렸고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을 보면서 창업 아이템을 '먹거리'로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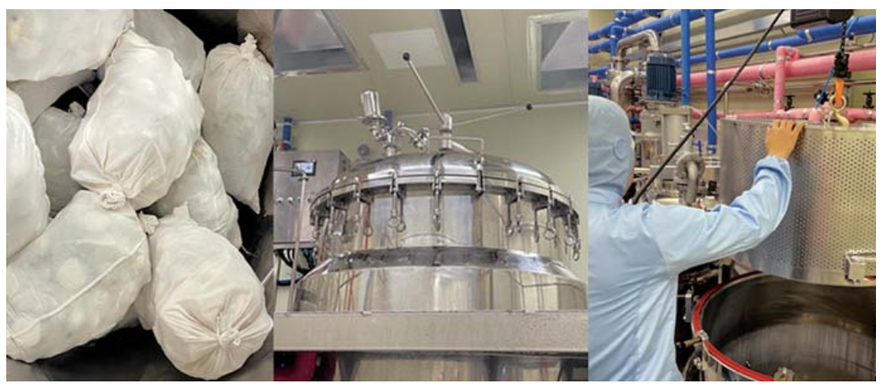
그는 "얼린 육수나 티백, 코인 육수는 형태 유지를 위해 아무래도 첨가물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놀디스튜디오의 스틱형 액상 육수의 핵심은 엄마의 수고를 덜면서 첨가제가 없는 건강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해당 제품을 개발한 박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육수 개발에 나섰고, 2년여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아이의 먹거리는 무조건 건강하고 짜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염도를 낮춘 액상 육수를 만들었지만 호응도가 낮았다.

10년 경력의 디자이너 활동을 접고 창업에 도전한 자존심에 금이 갔다. 그는 "제가 기획한 제품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간 차이가 컸다"고 털어놨다.

이후 박 대표는 처음 시험 생산한 제품을 모두 폐기했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채소와 육수를 나눠 재기획하고 3단계 염도 제품도 만들었다. 유통기한은 1년. 멸균 제품을 감안하면 다소 유통기한이 짧지만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박혜선 '놀디스튜디오' 대표가 음식에 맞춰 아무 때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식 스틱형 액상 육수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왼쪽부터 육수용 재료 묶음과 생산시설 모습.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제공〉

박 대표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배운 점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내 고집을 꺾고 주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것이었다"며 "창업은 소비자의 니즈 파악에 따라 성공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판로 역시 소비자들의 반응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광주 북구·광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생활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에도 적극 참여하며 제품 홍보나 마케팅 부분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외국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인들이 해외에서 국내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트라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미팅 때 요청이 많아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중앙부처 등 647개 사례 경쟁

민생문제 해결 기여 효과 탁월

광주시 대표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18일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최대 규모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647개의 혁신 정책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도전했다.

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 대국민 발표심사까지 거쳐 6개 사업이 2024년 최고의 정부혁신 정책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운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천여명의 돌봄시민을 발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정책 효과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혁신적 시도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표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을 메우는 작은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큰 정책이자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인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행정회 '시민 초청 사랑나눔 음악회' 성료

광주시 퇴직 공무원의 모임인 (사)광주시행정회(회장 강왕기)가 주최하고 광주시행정동우회가 후원한 '광주시민 초청 사랑나눔 음악회'가 지난 16일 오후 4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행정회 단체 중 하나인 행복어울림합창단이 '사랑'을 주제로 선보였다. 합창단은 매 무대마다 경쾌하고 발랄하며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선사해 객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20여년간 수백만명의 독자들에게 '아침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의 고도원 이사장이 특별초청돼 'You raise me up'을 열창한 데 이어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줘 의미를 더했다.

강왕기 광주시행정회 회장은 "광주시민들과 예술로 만나 호흡하는 자리가 무척 좋았다"며 "내년엔 더 멋진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위' 출범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특위는 최근 위원장에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 부위원장에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무경 위원장은 "전남은 약 2천165개 섬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비교우위 홍보 자원"이라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인프라 구축, 국제적인 홍보·마케팅, 다양한 프로그램 등 예산 확보를 비롯한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전남 섬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5년 5월14일까지 활동하며 최무경 위원장·최동익 부위원장을 비롯, 송형곤(고흥1)·신의준(완도2)·최미숙(신안2)·김인정(진도)·손남일(영암2)·최정훈(목포4)·류기준(화순2)·진호건(곡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재정 기자

강기정 시장, 치평초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진로탐색 활동을 펼치는 치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만나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치평초 6학년 학생들은 희망직업 대상 인터뷰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진행 및 기록·촬영 등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추후 인터뷰 영상을 전교생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학생들은 "시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이 되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나요?", "시장으로서 보람있던 일과 힘들었던 일", "어린이들을 위한 광주시 정책은 무엇인가요?" 등을 질문했다.

강 시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답변하며, 학생들의 꿈을 묻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어린이 무상교통의 첫 출발이자 광주형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G-패스' 정책과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을 연결해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담양군, 어르신 자서전 '나의 소풍이야기' 출판기념회

담양군은 "최근 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인물 자서전 '나의 소풍이야기'의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의 소풍이야기'는 담양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을 담은 인물 자서전으로, 올해로 발간 일곱 번째를 맞았다.

기념회는 25명의 자서전 주인공을 포함해 이병노 담양군수,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최용만·박은서·조관훈 군의원, 박영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 이정옥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어르신들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에 이어 어르신들의 소감과 인생 소회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자서전 '나의 소풍이야기'는 67-90세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소중한 추억들을 듣고 기록해 완성됐다. 자서전 속에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 헌신적인 자녀 교육,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삶의 무게 등이 오롯이 녹아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순국선열' 특강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최근 이향숙 청장이 목포 솔로몬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특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1월17일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연중 추진하고 있는 '보보 어린이 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가보훈부의 공식 캐릭터 '보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집 원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5-7세 어린이 40여명은 순국선열의 날 의미를 배우고, 보보 캐릭터 색칠놀이,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 마음을 가졌다.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보보 어린이 스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과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농기원 '농업인 드론 안전 체험 캠프'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전남도립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도립대에서 도내 농업인, 시·군 담당자, 드론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드론 안전 체험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립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체결한 드론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드론 안전 체험 캠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립대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교육 과정 개발 및 예산 지원, 드론 시연, 수소 드론 전시, 병해충 방제 시연, 드론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법규 준수,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드론 사용 안전 의식을 높였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드론 업무는 각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드론 안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드론 안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모임

▲담양곡성타임스 창간 16주년 기념식(발행인 한명석, 편집국장 정종대)=25일(월) 오후 3시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200 담양리조트 2층 대연회장(송강홀). 010-3612-0521.

결혼

▲김승수·최춘자씨 아들 인천군, 박태희(대성정밀 대표)·정선옥씨 딸 보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710-4000, 010-9190-1866.

▲이준·박인숙씨 장남 은식군, 이용희·이선양씨 장녀 예은양=24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도천동 147-29)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228-0000, 010-3647-9902.